

#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김동혁\*

## 1. 들어가는 말

외국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은 생소한 새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sup>1)</sup> 모국어의 문법을 충분히 습득한 사람이라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모국어 문법 체계에 근거해서 두 번째 언어(외국어)의 문법 구조를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떤 학습자가 명사, 대명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개념을 한국어 문법 교육을 통해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 학습자는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배울 때 noun, pronoun, subject, object, predicate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외국어 문법을 배울 때 늘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비슷하고, 그 구조나 체계 속 개념들(품사, 문장 성분 등의 범주들)이 어느 정도 등치된다면, 당연히 모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은 외국어 체계를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언어 각각은 그 나름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한 언어의 규칙들(문법)이 다른 언어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에서 ‘verb’라고 불리는 품사가 한국어의 ‘동사’와 꽤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즉, ‘verb’라는 표현이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가리키는 개념과 ‘동사’라는 표현이 한국어 문법에서 가리키는 개념이 혹 많이 다르다면, ‘verb’를 ‘동사’라고 번역하는 것, 그리하여 한국어 문법의 ‘동사’ 개념에 근거해서 ‘verb’라는 개념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감신대, 서울대, 연세대, 호서대 강사. donghyukk@gmail.com

1) 본 소고는 한국기독교학회 45차 정기 학술대회(2016년 10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찬으로 비평해 주신 서울기독교대학교 김도형 교수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조언해 주신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유기 교수와 오랜 친구인 경희대학교 영어학 부 박해일 교수, 그 외에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의 문법 범주와 그 번역어 중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몇 개를 고찰한다. ‘형용사’로 번역되는 ‘adjective’, ‘동사’로 번역되는 ‘verb’, ‘상태 동사’ 및 ‘동작 동사’로 각각 번역되는 ‘stative verb’와 ‘fientive verb’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각 표현과 그 번역어가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 문법 구조와 한국어 문법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리킨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각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번역어를 제시한다. 일종의 예비적 연구로서 본 연구는 언어 구조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므로 공식적, 기술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역사 및 어원과 관련된 내용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루지 않고자 한다.

## 2. ‘Adjective’와 ‘형용사’는 다르다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 구조 속의 ‘adjective’와 한국어 구조 속의 ‘형용사’는 공통점이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보여 준다. 먼저, adjective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2)</sup>

- ① 의미에 있어 항구적 혹은 일시적인 속성을 표현한다(big, old, green, happy, dry 등).
- ② 통사적으로는 명사류를 관형어로서 꾸며 주기도 하고(a big house), 서술어로서 풀어 주기도 한다(That house is big).
- ③ 형태적으로는 곡용(declension)을 한다.<sup>3)</sup> 즉, 꾸며 주거나 풀어 주는 명사와 성, 수, 격이 일치하도록 어미가 변화한다(프랑스어 un vieux livre ‘an old book’, une vieille maison ‘an old house’, des vieilles maisons ‘old houses’).

위 특징은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를 잘 설명해 준다. 영어의 adjective의 경우, 위 설명에서 든 영어의 예가 이미 보여 주고 있듯이 ①과 ②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③의 성질은 가지지 않는데, 고대 영어(Old English, 450-1150)에 있던 형용사의 어미변화가 중세 영어(Middle English,

2) 이하 adjective의 특징들은 R. L. Trask,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in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1993), 8의 설명에 필자가 약간의 해석을 더한 것이다.

3) 곡용은 성, 수, 격에 따른 변화를 가리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활용(conjugation)은 인칭, 수, 성, 시제, 태, 서법에 따른 변화를 가리킨다. 곡용에 대해서는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3판 (서울: 박영사, 2000), 214를, 활용에 대해서는 ibid., 172를 보라.

1150-1500)가 끝나기 전에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sup>4)</sup>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adjective로 분류되는 단어들을 ‘adjective’라고 부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sup>5)</sup>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의 경우는 세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닌다. 첫째,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예컨대, טוב ‘좋은’, גדול ‘큰’, ישר ‘정직한’, קשה ‘굳은’ 등—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항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속성을 표현한다. 둘째,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고(הַיֵּשׁבִּט הַטוֹב ‘그 좋은 남자’), 주어를 풀어 주는 서술어도 될 수 있다(יְשֵׁרָה הַאִשָּׁה ‘그 여자는 정직하다’). 셋째,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꾸며 주거나 풀어 주는 명사의 성에 따라 그 어미가 곡용한다(טוב의 변화 형태: טוב[남성 단수형], טובה[여성 단수형], טובים[남성 복수형], טובות[여성 복수형]).<sup>6)</sup>

한국어의 형용사는 어떨까? 우선,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를 한국어로 ‘형용사’로 번역함으로써 한국어 문법의 형용사와 동일시하는 것에 약간의 근거가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첫째, 한국어의 형용사도 adjective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을 표현한다(예컨대, 좋다, 크다, 정직하다, 모질다). 둘째, 한국어의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와 주어를 풀어 주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차례대로,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에서의 adjective를 한국어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 문법 속 adjective와 한국어 문법 속 형용사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형태상의 차이이다.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가 명사의 변화형을 따라 곡용을 하는 데 반해, 한국어의 형용사는 한국어 동사 변화에 가까운 활용(conjugation)을 한다.<sup>7)</sup>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4) Albert C. Baugh and Thomas Cable,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6th ed. (London: Routledge, 2013), 54, 156.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의 연대 구분에 관해서는 *ibid.*, 48을 보라. 중세 영어 이후 형용사의 어미변화가 사라진 이유 중에는 명사 변화가 지극히 단순해진 점도 있을 것이다. 즉, 다른 많은 인구어(Indo-European)와 달리 영어의 명사는 수(book, books)와 일부 격(teacher의 속격: teacher’s)을 제외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

5) 영어의 adjectiv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dney D. Huddleston and Geoffrey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26-535를 참조하라.

6) 영어의 adjective와 히브리어의 adjective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위 논의는 부득이하게 단순화된 것이다. 예컨대,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영어의 adjective보다 훨씬 쉽게 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와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용어를 공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반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두 언어의 adjective와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7) 한국어의 형용사가 활용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대구: 정림사, 2005), 88-89를 보라. 현대 영어의 adjective의 경우는 활용은 물론 곡용도 하지 않는다. 비교급, 최상급의 변화형을 제외하면 영어의 adjective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그 변화(곡용) 형태가 명사 변화의 범주와 같이 성(남성/여성)과 수(단수/복수)에 따른 변화형만 있는 데 반해, 한국어 형용사는 한국어 동사 못지않게 다양한 어미를 가질 수 있다.<sup>8)</sup> 아래는 한국어 형용사 ‘푸르다’의 활용 형태 중 극히 일부이다.

푸르게, 푸르고, 푸르기로서니, 푸르길래, 푸르나, 푸르니, 푸르다, 푸르러,  
푸르러서, 푸르지, 푸르지만, 푸른, 푸른데...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기능상의 차이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는 관형어뿐 아니라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단어인 계사가 필요하다(*he is good*; הַנַּחֵשׁ לֵימָּה עָרֹם ‘뺨은 간교했다’). 물론 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계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אֲנַחְנוּ הַכּוֹנִים אֲנַחְנוּ ‘우리는 지혜롭다’) 이 경우도 adjective가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계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sup>9)</sup> 반면 한국어 형용사는 다른 단어(즉, ‘이다’) 없이 종결형(-다, -구나, -도다, -[으]냐...)으로 활용되기만 하면 서술어가 될 수 있다(뺨은 간교했다, 우리는 지혜롭다).<sup>10)</sup>

요컨대, 한국어의 형용사는 다른 두 언어의 adjective와 비교할 때 의미(의미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닮아 있으나 그 형태(형태론)와 문장 내 기능(통사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 점이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들에게는 혼동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조금 급진적인, 그러나 필자의

8) 김동소는 현대 한국어의 동사 어미가 1,700개가 넘는다고 말한다. 다만 김동소가 지적하듯이 한국어의 형용사 활용은 동사 활용과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 첫째, 동작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현재 종결형 어미 ‘~는다/~는다’와 관형사형 어미 ‘~는’이 못 붙는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의 동작, 또는 동작 결과의 계속을 나타내는 ‘~고 있다’의 형이 없다. 셋째, 명령형과 청유형이 없다.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89.

9) 계사(성서 히브리어의 경우 הַיּה) 없는 성서 히브리어 문장, 즉 verbless clause가 계사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Cameron Sinclair, “Are Nominal Clauses a Distinct Clausal Type?”, Cynthia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1 (Winona Lake: Eisenbrauns, 1999), 58-59, 75와 그를 인용한 Bill T. Arnold and John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65 n. 11을 보라. 상태나 조건을 뜻하면서(즉, adjective의 의미 영역을 표현하면서) 형태적, 통사적으로는 verb인 단어들이 성서 히브리어에 조금 있는데, 다름 아닌 stative verb이다(아래 stative verb에 관한 논의를 보라). 서술어(predicate)로서 stative verb가 쓰인 문장은 당연히 verbless clause가 아니다.

10) 종결 어미와 계사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후자는 많은 언어에서 독립된 단어로 이해되지만(예컨대, 영어의 ‘be’나 성서 히브리어의 הַיּה), 한국어 문법의 종결 어미는 의존 형태소이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4판 (서울: 박이정, 2014), 38을 보라.

생각에는 더 나은, 첫 번째 제안은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의(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많은 외국어들의) adjective를 ‘형용사’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번역하자는 것이다. 새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의 형용사와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가 자질들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더 불편하고 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생경한 새 명칭을 만듦으로써 adjective라는 개념이 한국어 체계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임을 암시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낫다. 약간의 불편함이 오히려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속성사(屬性詞)’ 같은 표현은 어떨까? 이 명칭은 adjective가 꾸며 주거나 풀어 주는 어떤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는 품사임을 일러 준다. 둘째, 새 표현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면,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의 adjective가 한국어의 형용사와는 형태와 역할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차선택이 될 것이다. 즉,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혹은 다른 많은 외국어) 체계 속의 ‘형용사’(= adjective)는 한국어 체계 속의 ‘형용사’와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 3. ‘Verb’는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adjective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verb에 관한 이해이다. 영어 등 여러 외국어에서 ‘verb’로 불리는 품사는 일반적으로 ‘동사(動詞)’로 번역된다. 이 번역의 문제점은 김동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영어의 verb라는 말은 라틴어 verbum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원래 ‘낱말, 말, 형식, 표현 서술’ 등의 뜻을 갖고 있었다. 이를 일본에서 ‘동사(動詞)’로 번역하여 쓰기 시작한 후 중국과 한국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verbum의 원래 의미와 ‘동사’라는 낱말의 원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먼저 영어의 ‘be 동사, have 동사’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다. be나 have는 존재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이 용어에 거부감을 안 가질 수 없었다.<sup>11)</sup>

영어에서 ‘be’나 ‘have’가 verb로 분류되는 이유는 verb가 규정될 때 형태

11)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88.

론과 통사론의 틀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verb는 형태적으로 인칭, 수, 성, 시제, 상, 태, 서법 등에 따라 활용(conjugation)을 하며 통사적으로 서술어(predicative)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이다.<sup>12)</sup> 아래 verb가 포함된 문장들을 보라.

영어: This *mattered* little to me.

고전 그리스어: ἔπεμψας ‘내가 보냈다.’

불어: Le monde *est* beau. ‘세상은 아름답다.’

독어: Das kind *rannte*. ‘그 아이는 달렸습니다.’

위 예문의 모든 verb는 형태에 있어 법, 시제, 상, 인칭, 수 등의 자질을 지닌 변화형을 취했다. 그리하여 영어의 verb인 ‘mattered’는 직설법 과거 형태이고, 불어의 verb인 ‘est’는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형태이고, 그리스어의 verb인 ἔπεμψας는 직설법 부정 과거(aorist) 2인칭 단수 형태이고, 독어의 verb인 ‘rannte’는 직설법 과거 3인칭 단수 형태이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모든 verb가 문장 속에서 술어가 된다. 의미론적 범주로서 ‘움직임’이란 의미는 이 단어들을 verb로 규정할 때에 필요조건이 아니다. 물론, 많은 외국어에서 대부분의 verb가 ‘움직임’이란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 것과 어떤 단어가 verb로 규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김동소가 언급한 영어의 ‘be’와 ‘have’가 그 반례이고, 위 예문에서 영어의 ‘mattered’(‘중요했다’)와 불어의 ‘est’(‘이다’) 역시 반례가 된다. 즉, 이 단어들은 verb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어 문법의) 동사가 아니다. 그 의미가 동작이 아닌 상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영어 ‘mattered’와 불어 ‘est’의 경우 번역어(‘중요하다’, ‘이다’)의 한국어 품사를 보면 각각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가 된다.<sup>13)</sup>

품사가 verb인 어떤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되는 상황은 성서 히브리어에도 있다. 오히려 성서 히브리어에는 널리 알려진 유럽어들에서보다 그러한 verb가 훨씬 많다.<sup>14)</sup> 아래 예들을 보라.

12) 예컨대,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937에서 ‘verb’의 정의를 보라.  
 13) 서술격 조사가 지닌 몇 가지 특수한 성질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격조사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간략한 소개로서 이관규, 『학교 문법론』, 개정판 (서울: 월인, 2002), 143-145를 보라.  
 14)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verb는 stative verb이다(아래 stative verb에 관한 논의를 보라). 주웅과 무라오카(Paul Joüon and T. Muraoka)는 성서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stative verb를 38개 제시한다.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118-120 (§41f)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136-138)을 보라.

- היה ‘그는 ~이다’(he is ...)  
 כבד ‘그는 무겁다’(he is heavy)  
 ירא ‘그는 두렵다’(he is afraid)  
 קטן ‘그는 작다’(he is small)  
 חכם ‘그는 지혜롭다’(he is wise)

위 단어들은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물론 verb이다. 성서 히브리어 문법의 범주를 따라 인칭, 성, 수, 상에 따라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한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동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번역어를 보면 첫 단어는 서술격 조사이고 나머지 네 단어는 형용사이다.

정리하자면,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의 문법 체계 속에서 verb는 형태론과 통사론 속에서 규정된다. 즉, verb는 ① 활용을 하며, ②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반면, 한국어 문법 체계 속의 동사는 거기에 세 번째 기준이 더해진다. 즉, ③ 의미적으로 동작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①과 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어 범주, 즉 영어나 성서 히브리어의 verb에 속할 수 있는 단어는 동사 외에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가 있다.

그러니 verb가 이 나머지 두 범주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일러 주기 위한 새 용어가 필요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실은 한국어 문법에서 세 범주를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있다. ‘용언’이 그것이다.<sup>15)</sup> 그러나 verb는 품사의 범주이므로 다른 품사들처럼 ‘사(詞)’로 끝나야 할 것이다.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는 의미에서 필자는 실험적으로 ‘서술사(敍述詞)’라는 명칭을 제안한다. 요컨대, 필자가 제안하는 ‘서술사’는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 문법에서의 verb를 번역한 말로서, 한국어 문법에 대응할 때에는 활용을 하며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모든 단어, 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아우르게 된다.<sup>16)</sup>

#### 4. ‘상태 서술사’(Stative Verb)와 ‘동작 서술사’(Fientive Verb)

15) 예컨대,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121-123을 보라.

16)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즉 용언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품사 범주를 제안하자는 의견은 필자가 처음 생각해 낸 것이 아니다. 김동소는 한국어 형용사가 동사처럼 활용을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품사 분류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분류하고자 들은 그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더 한국어적인 분류라고 말한다.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88. 번역가 윤영삼은 “Verb는 동사?”라는 블로그 글에서 김동소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verb의 번역어로 ‘서술사’가 더 나음을 필자보다 앞서 주장했다. <https://yuneys.wordpress.com/2009/03/19/verb%EB%8A%94-%EB%8F%99%EC%82%AC/> (2016.7.29.).

영어, 성서 히브리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에서 verb는 크게 ‘fientive verb’와 ‘stative verb’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의미이다. 이 중 fientive verb는 행동, 움직임, 상태 변화를 서술한다.<sup>17)</sup> 이런 단어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transitive ‘타동’) 안 가질 수도 있다(intransitive ‘자동’).<sup>18)</sup> 성서 히브리어의 예로는 כתב(쓰다), שמר(지키다), נפל(떨어지다), ירד(내려가다) 등을 들 수 있다.<sup>19)</sup> 반면, 앞에서 논의한 היה(~이다), כבר(무겁다), ירא(두렵다), קטן(작다), חכם(지혜롭다) 등은 움직임이 아닌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stative verb이다.<sup>20)</sup> 이 stative verb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번역어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단어(היה)는 한국어의 서술격 조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한국어의 형용사에 해당된다. 이것들과 더불어 זקן(나이가 많다), יכול(능력이 있다)도 역시 stative verb에 속하는데,<sup>21)</sup> 번역어 자체(‘나이가 많다’, ‘능력이 있다’)가 형용사는 아니지만, 역시 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은 쉽게 수긍된다. 마찬가지로 ‘옷을 입다’(to clothe)와 ‘옷을 입은 상태이다’(to be clothed)를 모두 뜻할 수 있는 לבש도 후자의 의미일 때는 stative verb가 된다.<sup>22)</sup>

문제는 fientive verb와 stative verb의 번역이다. 곧 ‘verb’를 ‘동사’로 번역하는 습관 때문에 두 명칭을 각각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번역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sup>23)</sup> ‘동작 동사’는 동어 반복이고, ‘상태 동사’는 모순 어법 이기에, 이런 명칭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함과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앞

17) Bill T. Arnold and John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38. 또한 Bruce K. Waltke and Michael Patrick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363-364;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an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Biblical Languages: Hebrew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76;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5 n. 1 (§40b n.) (『성서 히브리어 문법』, 132 n. 1)을 보라. 학자들에 따라 ‘fientive verb’는 ‘active verb’나 ‘dynamic verb’로 불리기도 한다. 차례대로,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5 (§40b), 116-117 (§41a) (참고: 『성서 히브리어 문법』, 132, 133);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rev. ed. (Nashville: Abingdon, 1995), 145-146을 보라.

18)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145; Bill T. Arnold and John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38.

19)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145-146.

20)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145-146. 또한 Bruce K. Waltke and Michael Patrick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64;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an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77, 365;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5 (§40b), 116-120 (§§41b-f) (『성서 히브리어 문법』, 132, 134-138)을 보라.

21)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146.

22) Ibid.

23) 예컨대, 김동소의 비판을 보라. “그런데 이[active verb와 stative verb라는 용어]를 본 주체성 없는 어떤 한국학자가 이 용어들을 ‘동작 동사(動作動詞)’와 ‘상태 동사(狀態動詞)’로 번역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희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89.



선 제안을 따라 verb를 ‘서술사’로 부르게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fientive verb는 ‘동작 서술사’로, stative verb는 ‘상태 서술사’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stative verb를 ‘형용사’로 fientive verb를 ‘동사’로 번역하자는 제안이 있다.<sup>24)</sup> 실제로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 fientive verb는 한국어의 동사에 가깝고 stative verb는 한국어의 형용사에 가깝다. 그러나 이 대응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다수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형용사인 것이 사실이지만(위에서 예로 든 ‘무겁다’, ‘두렵다’, ‘작다’, ‘지혜롭다’ 등), 몇몇은 서술격 조사(‘이다’)나 동사(‘알다’, ‘사랑하다’)가 된다.<sup>25)</sup> 따라서 stative verb를 ‘형용사’로, fientive verb를 ‘동사’로 옮기는 것은 말하자면 지나친 ‘번안’이 된다. 덧붙여 이미 국문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고 시인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와만 결합하고(예: 출발하는 기차, 솟는 해, \*착하는 철수), 종결 어미 ‘-다’는 신문 등의 표제를 제외하면 형용사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예: 철수는 착하다, \*우리 차는 오늘 서울을 출발하다), ‘맞다’의 경우는 두 가지 어미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즉, ‘이 옷은 내게 꼭 맞다’와 ‘꼭 맞는 옷’ 두 예문 모두 문법적으로 옳으므로, ‘맞다’를 두 품사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sup>26)</sup>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stative verb와 fientive verb를 ‘형용사’, ‘동사’로 번역하기보다는 두 개념이 한국어 구조와 꼭 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해 낯선 명칭인 ‘상태 서술사’와 ‘동작 서술사’를 사용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 5. 나가는 말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번역되는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 문법 구조 속 adjective와 verb는 한국어 문법 구조 속 형용사 및 동사와 그 외연이 상당 부분 다르다. 즉, adjective는 변화의 방식과 문장 속 역할에 있어서 한국어의 형용사와 다르므로 ‘형용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속성사(屬性詞)’ 같은 낯선 명칭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verb는 ‘동사’로 번역하지 말고 ‘서술사’로 번역함으로써 verb가 한국어의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

24) 예컨대,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88-89를 보라.

25)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18-120 (§41f) (『성서 히브리어 문법』, 136-138)에 있는 stative verb들의 목록을 참고하라.

26) ‘맞다’의 예는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113에서 가져온 것이다. 동사(특히 자동사)와 형용사의 경계를 갖기가 어려운 점에 관해서는 고영근,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과주: 집문당, 2008), 98-99를 보라.

와 서술격 조사도 아우르는 품사임을 일러 주는 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fientive verb와 stative verb는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기존의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대신 ‘동작 서술사’와 ‘상태 서술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표 1>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번역 제안

	기존 용어	제안
adjective	형용사	속성사(屬性詞)
verb	동사	서술사(敘述詞)
fientive verb	동작 동사	동작 서술사
stative verb	상태 동사	상태 서술사

새 표현을 만들어 쓰는 일은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존의 번역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낫선 새 번역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남의 것과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봄으로써 내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한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논의를 단순화했다. 예컨대, 우리의 논의는 영어/히브리어 대(對) 한국어 식으로 비교·대조했는데, 보다 바람직하게는 영어, 성서 히브리어, 한국어의 각 체계를 독립적으로 살피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adjective와 verb와 관련된 소수의 범주만을 다루었는데, 이후의 연구들은 다른 주요 문법 개념들을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개념들이 한국어 문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그 외연이 상당 부분 겹치는지, 반면 어떤 개념들이 그렇지 않은지 등을 상술할 수 있다면, 영어와 히브리어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언어 일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형용사, 동사,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성서 히브리어.

adjective, verb, fientive verb, stative verb, Biblical Hebrew.

(투고 일자: 2016년 7월 28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영근,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2008.
-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대구: 정림사, 2005.
-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4판, 서울: 박이정, 2014.
- 이관규, 『학교 문법론』, 개정판, 서울: 월인, 2002.
-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3판, 서울: 박영사, 2000.
- 윤영삼, “Verb는 동사?”, <https://yuneys.wordpress.com/2009/03/19/verb%EB%8A%94-%EB%8F%99%EC%82%AC/> (2016.7.29.).
- Arnold, Bill T. and Choi, John H.,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augh, Albert C. and Cable, Thomas,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6th ed., London: Routledge, 2013.
- Huddleston, Rodney D. and Pullum, Geoffrey K.,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Joüon, Paul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Joüon, Paul and Muraoka,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Merwe, C. H. J. van der, Naudé, J. A., and Kroeze, Jan,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Biblical Languages: Hebrew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Seow, C. L.,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Rev. ed., Nashville: Abingdon, 1995.
- Sinclair, Cameron, “Are Nominal Clauses a Distinct Clausal Type?”, Cynthia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1, Winona Lake: Eisenbrauns, 1999, 51-75.
- Trask, R. L.,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in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1993.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ichael Patrick,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Abstract>

## **A Thought on Some Grammatical Terms and Their Proposed Korean Translations in the Study of English and Biblical Hebrew**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some grammatical terms in English and Biblical Hebrew (BH),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that may cause misunderstanding: *adjective* and its translation *hyeongyongsa* (형용사), *verb* and its translation *dongsa* (동사), and *stative verb* and *fientive verb* and their translations *sangtae dongsa* (상태 동사) and *dongjak dongsa* (동작 동사). The study argues that the grammatical concepts that the English expressions refer to in English and BH differ from the ones that the Korean expressions refer to in Korean.

First, *adjectives* in English and BH differ from *hyeongyongsas* in Korean. Morphologically, *adjectives* decline whereas *hyeongyongsas* conjugate. Syntactically, *adjectives* require a copula to be a predicate while *hyeongyongsas* need an ending. Therefore, rather than translating *adjective* as *hyeongyongsa*, it seems better to invent a new expression like *sogseongsa* (속성사).

Second, the category called *verb* in many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BH is generally translated as *dongsa* in Korean. In English, BH, and many other languages, *verbs* are understood to conjugate morphologically and to be able to be a predicate syntactically. On the other hand, Korean *dongsas* should meet an additional condition: the fientive meaning. Therefore, the category of *verbs* and that of *dongsas* do not overlap well enough, and the latter is not a satisfactory translation of the former. The study suggests *seosulsa* (서술사) as an alternative.

Third, verbs are grouped into fientive verbs and stative ones, generally translated as *dongjak dongsa* and *sangtae dongsa*. Following the foregoing discussion, *dongjak seosulsa* (동작 서술사) and *sangtae seosulsa* (상태 서술사) are to be preferred.